

## 성숙으로의 초대

- 백운영 목사

우리는 날이 갈수록 지식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1 세기에 인터넷 발달과 개인접촉이 가능한 SNS 의 개발로 인하여 내 이메일뿐 아니라 Facebook, Katok, Instagram 계정에 수 많은 사람이 다양한 동영상과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중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렴풋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Social Network 을 통해서 밀려오는 다양한 정보를 잘 구별하고 걸러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담을 쌓고 내 자신의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친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날마다 날아드는 모든 정보를 다 읽거나 모든 영상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다보면 기준없이 내 자신이 흔들릴 수가 있기에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읽는 가는 주의를 요하는 일입니다. 은연중에 이단 교리가 우리 안방까지 들어오고 무분별한 세상 얘기에 실없이 마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의 적극적인 초청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매일 교제권을 형성할 때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무엇이 바른지, 어느 결정이 가장 유익한지, 어떤 행동이 덕이 되는지를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우리 마음에 아픔으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려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과 동떨어져 세상적인 목적으로 달려갈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때론, 죄로 인하여 이익을 취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와 계시기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는 전혀 기쁨이 생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에 감화를 줄 때 우리는 서서히 분별력이 형성됩니다. 무엇이 바른 삶이고 무엇이 덕이 되는 결정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일일이 말씀을 찾아 대조해보지 않아도 내성이 생기는 것을 "신앙적인 성숙"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선택하시고 목적하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우는 과정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엡 4:13) 를 우리의 목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성숙은 그냥 신앙 생활 오래 했다고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는 종교생활을 어어간다면 어떤 변화의 열매도 없습니다.

심지어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아직 고집스럽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정기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언어순화를 통해 밖으로 드러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SNS 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제자리 걸음의 신앙 수준에 머물게 되고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으로 자라나게 되며 열매로 드러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